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농지은행 예산 441억 확보'... 상반기 조기집행 본격화

상반기 70% 이상 집행 목표... 특별추진팀 구성해 상담·홍보 강화
농지매입비축·경영회생 등 핵심 사업 추진... 농가 경영안정 도모
청년농·2030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

정성우 기자 swjung@kgnews.co.kr

등록 2026.02.06 08:41:20



▲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전경.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는 지난 5일 올해 농지은행사업 예산으로 총 441억 원을 확보하고, 상반기 중 70% 이상 조기 집행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밝혔다.

안성지사는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농지은행사업 특별추진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청년농 협의회와 지역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상담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주요 사업은 농지매입비축사업 303억 원을 비롯해 경영회생지원사업 39억 원, 선임대후매도 18억 원, 농지수탁, 훼손농지복구, 농지연금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안정화를 지원하고, 창업농과 2030세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도울 방침이다.

특히 농지은행사업은 농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세대 간 농지 이전을 촉진해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안성지사는 이번 대규모 예산 확보를 계기로 지역 농업인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와 농촌 활력 제고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남호성 안성지사장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생애주기와 연령별 성장 단계에 맞춘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만족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은행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